

설교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탄절은 낮아짐의 날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은데로 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성탄절은 비움의 날입니다.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했습니다. 낮아짐이라는 말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낮아짐을 넘어 온전한 비움이었습니다. 온전히 스스로를 비우시고, 그 자리에 낮고 천한 종의 형제를 채우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성탄절은 희생의 날입니다. 8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십자가의 서막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 곁에 그치지 않고, 우리보다 더 낮은 십자가를 향한 낮아지심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성탄은 찬양과 감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이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 구세주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온 가족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MERRY CHRISTMAS

성탄축하예배

Canadian National Baptist Convention
에드먼튼한인침례교회
EDMONTON KOREAN BAPTIST CHURCH



